

진짜사장·진짜교섭

현대제철비정규직 현대제철내화조업정비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 현대모비스 아산·천안·서산·아산물류·EBS천안 비엠아이

금속노조 깃발 아래,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2026년 원청교섭 공동요구안 확정... 이중착취 구조 폭로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3월 3일 61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26년 원청교섭 요구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올해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모든 단위는 공동요구안을 원청자본에 요구합니다. 권고요구안은 사업장별 조건과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지회별로 3월중 정기대대(총회)를 통해 추가 요구안을 확정합니다. 지회별 추가 요구안까지 확정되면, 노조 방침에 따라 3월안으로 원청회사 상대로 2026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발송합니다. 기존에 진행했던 하청업체(자회사)와의 단체교섭도 노조 일정에 맞춰 병행합니다. 충남원청투본은 3월 6일 함께 지회별 요구안을 논의하고, 큰 방향을 설계할 예정입니다.

공동요구안은 같은 처지인 우리들의 공동목표입니다. 우리 요구안 자체가 원청과 하청으로부터 이중으로 착취 당해왔던 고질적인 병폐를 증명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진짜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요구안을 통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력과 이익을 누려왔던 자들이, 이제부터 책임있는 해법과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현장이야기 2



자회사는 거대한 하청업체 모비스가 사용자인 이유

2000년대 초반 현대모비스는 폭력적으로 부품사를 인수 합병하면서 덩치를 불렸습니다. 기술을 보유한 부품사와 완성차 생산 외주업체를 흡수하며 모듈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모듈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100%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로 구성된 無노조 공장 운영과 완성차와 모듈공장을 직서열 생산방식으로 연결하여 인건비와 물류비 절감하고 재고없이 완성차에 납품하는 시스템의 완성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2010년대 중반부터 전국의 현대모비스 공장에 금속노조의 깃발이 세워지면서 흔들립니다. 불법파견이라는 법적 리스크도 발생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꼼수로 2022년 자회사를 설립하여 불법파견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청노동자를 편입시켰습니다. 하지만 '모트라스'라는 자회사는 겉으로는 독립된 사업장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국에 있는 기존 생산 하청공장을 합친 것에 불과합니다.

구분	교섭의제	요구안
공동 요구안	전문 총칙	· '금속노조' 협약 체결 주체 · 협약의 준수, 이행 의무
	임금	· 임금인상 : 월 기본급 149,600원 · 임금지급 연대책임
	고용안정	· 업체 변경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
	노동안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권고 요구안	조합활동	· 조합활동 보장, 불이익 금지 등
	임금	· 성과급, 수당 등 지급
	고용안정	· 정규직 전환 특별협의체 구성 등
	복지	· 학자금, 공동복지기금 등
	개인정보	· 전산 프로그램, CCTV 감시 등
노동안전	· 안전장비 제공, 작업중지권 등	

모트라스 임금 인상은 현대모비스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모트라스는 마치 어딘가에 불변의 원칙이라도 있는 듯, "모비스보다 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근거와 이유도 없이 모트라스 성과급은 매년 현대모비스 70~80%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모트라스 공장안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대모비스 승인이 필요하고, 현대모비스가 투자를 해야 모트라스의 시설과 설비 구축도 가능합니다.

자회사 구조조정은 100% 지분을 소유한 모회사 손에 달려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또 다른 자회사 유니투스 램프 사업부 매각 이슈가 보여줍니다. 현대모비스 결정에 따라 자회사 노동자들의 삶이 좌지우지됩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모비스는 자회사노조와 어떠한 논의도 안했습니다.

자회사는 불법파견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고, 자회사는 덩치만 커진 껍데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현대모비스를 '진짜 사장'이라 규정하고 '진짜 교섭'에 나선 이유입니다.

이청수 / 현대모비스아산지회 지회장